

# 세계의 물방울 광주 올림 속에 하나 된다



## 마스터즈대회 개막식 11일 남부대 특설무대 지구촌 미래 향한 '생명·평화' 메시지 전달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이하 마스터즈 대회) 개막식이 11일 오후 7시 30분 남부대 야외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마스터즈 대회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됐으나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영 경기를 하루 앞둔 이날 개막식이 열린다.

개회식에는 이용섭 조직위원장 겸 광주시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클레스 쿨 총장 등과 시민 등 2,000여명이 함께 한다.

개막식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와 함께 마스터즈대회 역사 영상이 상영, 이용섭 대회조직위원장의 환영사, 모하메

드디옌 FINA 부리예종의 대회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가 진행되고 이어 본격적인 개막 세레모니가 펼쳐진다.

개막식 주제는 '물의 진동'(Wave of Harmony)이다. 온 세계의 물방울들이 광주의 올림 속에 하나가 된다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개막 세레모니 '물의 진동'은 학춤과 타악 협주곡으

로 남도의 음악이 진동을 일으키고, 그 울림을 따라 세계인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룬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개막식은 선수권대회와 같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기치 아래 지구촌 미래를 향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이번 마스터즈대회 개폐회식은 광주 시민들이 모여 민주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온 세계에서 모인 물

방울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물줄기로 미래의 바다로 함께 향하자는 메시지를 담는다.

세레모니가 끝난 후 국가계양과 84개 참가국 국가가 입장하고, 이번 대회 시작을 알리는 FINA기가 계양된다. 이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악인 박애리씨가 출연해 '평화의 올림' 공연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육중환밴드가 출연해 신명나게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편, 5일부터 시작되는 마스터즈 대회 경기는 아티스틱수영과 수영, 오픈워터수영이 진행 중이며, 약 3,0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영 경기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황애란 기자

## “대회 시설 훌륭 한국 발전 계기”

이블리 전 FINA 마스터즈위원장 오픈워터수영 3km 출전



에드 이블리(캐나다) 전 FINA 마스터즈위원장이 9일부터 3일간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에서 열리는 마스터즈수영대회 오픈워터수영 3km 종목에 직접 출전해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고 우의를 다진다.

사실 그는 선수 출신이 아니다. 자녀 레슨으로 수영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수영의 매력에 푹 빠졌다. 수영에 대한 열정은 그의 삶을 바꿨다. 평범한 가정에서 국제수영연맹의 대사를 관장하는 수영 행정가로 변신했다.

이블리씨는 2009년부터 8년간 FINA 마스터즈위원장을 맡을 만큼 국제수영계의 중요 인사가 됐다. 그는 경기 운영과 진행의 수준을 향상한 것을 성과로 꼽는다. FINA 홀과 가이드라인을 마스터즈 대회에 적용해 판정 시비에 따른 잡음과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 2년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최지 시설과 현황을 파악해 참가 인원 등 대회의 규모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블리씨는 “남부대 수영장 등 각종 시설과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다”며 “수영 불모지인 한국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가 아직은 낯선 도시지만, 동양의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회가 끝나면 광주를 비롯해 호남 지역을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8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9 광주 FINA 세계 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여성 40-49세 솔로 프리 부문에 출전한 유나미(한국)가 정태훈의 '5·18' 노래에 맞춰 연기를 펼치고 있다. /수영대회조직위원회 제공

## “광주 아픔 위로...가장 뜻깊은 도전”

유나미 선수, 5·18민주화 운동 주제 연기

8일 광주마스터즈수영대회가 열리고 있는 염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 경기장에서 가수 정태훈의 '5·18'이 울려 퍼졌다.

끝나지 않은 5월 그날의 기억이 슬픔과 아픔의 몸짓으로 나타나더니 이윽고 치유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은메달, 2000년 시드니올림픽 본선 진출 등 대한민국 아티스틱수영의 간판이었던 유나미 선수(41)는 광주시민들의 슬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연기를 펼쳤다.

유 선수는 151.6933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유 선수의 연기는 5월 광주의 슬픔이 그대로 묻어있는 노래 가사처럼 아픔과 슬픔의 몸짓이었다. “붉은 꽃을 심지 마라”는 가사에는 꽃이 피었다 지는 듯한 발동작을 표현했고, ‘살아남은 자들의 가

슴엔 아저도’라는 가사에는 얼굴과 가슴을 감싸 쥐는 듯한 표현과 표정으로 5월의 아픔을 나타냈다. 슬픔과 아픔으로 이어진 연기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모든 광주시민들의 상처가 씻겨지길 바라는 치유의 기도로 승화했다.

유 선수의 슬픔과 아픔이 치유의 기도로 승화된 연기에 광주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감사를 전했다.

경기를 마친 뒤 유 선수는 “‘5·18’이라는 노래를 듣고 이 노래는 꼭 광주에서 크게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해 대회 참가를 결심했다”며 “부모가 자식을 보는

듯한 슬픔이 묻어나오는 가사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감정이입이 됐다”고 참가 계기를 밝혔다.

이어 “그날의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슬픔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번 연기가 광주시민들에게 자그마한 위로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했다”고 마음을 전했다.

유 선수는 “저에게는 이번 마스터즈 대회가 선수생활을 하며 뛰었던 올림픽, 아시안게임보다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대회가 됐다”며 “광주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셨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황애란 기자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 70년대 수영스타 최연숙씨...37년 만의 복귀

###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 뇌출혈 투병에도 자유형 5개 종목 참가

대한민국 여자 수영계를 주름잡았던 최연숙씨(60)가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화제다.

최씨는 1970년대 중후반 8개 종목에서 무려 32차례나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한국 수영계에서 70년대 전반부가 조오련의 시대였다면 후반부는 최연숙의 시대라는 평가도 받았다.



되돌아가야 할 곳으로 생각했다. 다만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극복하지 못했었다.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30여 시간 만에 발견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투병 생활로 다시는 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최씨는 이번 대회에 자유형 50m, 100m, 200m, 400m, 800m 등 5개 종목에 참가를 신청했다. 지난 82년 마산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은퇴한 이후 37년만의 복귀다.

그는 “‘앞뒤 보지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라’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대회출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회 참가 의미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은퇴와 결혼, 투병 등을 거치면서 잠시 내려놓았거나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확인해 찾아가는 대회라는 것이다.

그는 광주세계마스터즈대회 준비 겸 테니스로 6월 6일 용산마스터즈대회 대회 50m 출전을 거쳐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정상이 아니다. 처음에는 의사가도 만류했다. 가까스로 승낙을 받았지만 키를 하지 못해 손으로 수영을 하는 수준이었다.

최씨는 “내 능력을 절정에서 터뜨려보지 못하고 은퇴했다. 그 점이 늘 아쉽고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번 대회 목표는 800m 완주다. 지난 6월부터 하루 40분씩 훈련하고 있다.

그는 “마구 등 더 큰 무대에서 배우고 싶었지만 주변 만류와 외면으로 유학의 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며 “동기를 상실해갈 즈음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됐다”고 은퇴 과정을 말했다.

그는 “37년만에 용기있는 도전이다”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선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수영을 계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애란 기자

## 시, 마스터즈대회 기간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광주시는 오는 14일까지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중 선수촌과 남부대, 염주체육관 일원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치구,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불법주정차를 집중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단속구간은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과 인도 등 황색실선의 주정차 금지구간이다. /황애란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2019년218 상속한정승인  
상속인: 황지오  
피상속인: 망 황묘인  
(660108-1\*\*\*\*\*, 2018년 11월 8일 사망)  
최후주소: 나주시 반남면 풍동방두길 148

법정상속인 황지오의 피상속인 망 황묘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 하여서 한 2019. 2. 8자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9. 3. 29자로 수리 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에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한정승인: 황지오 (010-8584-5217)  
채권신고장소: 전남 영암군 신북면 교분로 995

**상속포기공고**

광주가정법원 2019년217상속 포기  
상속인: 신정심, 황지환, 황다환  
피상속인: 망 황묘인  
(660108-1\*\*\*\*\*, 2018년 11월 8일 사망)  
최후주소: 나주시 반남면 풍동방두길 148

법정상속인 신정심, 황지환, 황다환의 피상속인 망 황묘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 하여서 한 2019. 2. 8자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9. 3. 29자로 수리 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에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한정승인: 신정심 (010-8584-5217)  
채권신고장소: 전남 영암군 신북면 교분로 995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7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형 박배성 302-0316-649511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형, 신속처리